

무용 소재 만화의 서사분석과 독자 반응 연구

웹툰 「나빌레라」를 중심으로

김 주 희*

I. 서론

II. 웹툰 「나빌레라」의 서사분석

III. 웹툰 「나빌레라」의 댓글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안무가 김보람은 신작 「돈 두(Don't do)」(2017)를 선보이기 전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품의 주제를 만화로 만들어 SNS에 연재해 화제가 된 바 있다.¹⁾ 만화를 공연 홍보에 쓴 것에 대해 그는 “현대무용은 난해하다는 인식이 있어 먼저 친숙한 매체를 활용해 작품의 주제 의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쉽고 간결하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만화는 어린이 학습서나 성인을 위한 교양 참고서, 광고 등에서 자주 사용된다.

특히 웹툰의 등장은 만화 시장의 큰 변화를 안겨 주었다. ‘웹툰(webtoon)’이라는 용어는 인터넷을 뜻하는 ‘web(웹)’과 ‘cartoon(만화)’을 합성한 말로, ‘작가의 그림과 활자가 온라인 상에서 스캔(scan)되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배포되는 만화’를 의미한다.²⁾ 웹툰의 특징은 언제 어디서라도 인터넷에 접속만 할 수 있다면 볼 수 있는 편리한 접근성과 몇 번이고 다시 볼 수 있는 재구독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용자 스스로가 마우스 스크롤을 이용하여 읽은 방향과 속도, 크기의 확대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으며 웹툰을 평가하는 점수 시스템과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댓글 기능을 통해 능동적인 독자 참여가 가능하다.³⁾ 여기에 기술의 발전이 더해져 최근의 웹툰들은 배경음악과 사운드를 삽입하거나 플래시 애니메이션 효과는 물론 동영상 연출까지 동반하여 표현 양식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⁴⁾

* 성균관대학교 하이브리드미래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sunjang33@gmail.com

1) 마지혜(2017), 관객에게 더 가까이... 눈높이 맞추는 현대무용,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2002561, 2018. 2. 14.>.

2)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user_nhn?docid=260d5fd4ec8b7f888cd3c558cab8c151, 2018. 2. 14.>.

3) 전경란(2017), 『디지털내러티브』(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p.45-46.

4) 앞의 책, p.47.

현재 이러한 웹툰은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어 방대한 시장성을 갖추고 있다. 전국출판협회 출판과학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일본 전체 만화 시장 규모는 약 4454억 엔(약 4조6000억 원)이며 이 중 웹툰 시장은 3분의 1 수준인 1491억 엔(약 1조5000억 원)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⁵⁾ 카카오(Kakao)의 웹툰 콘텐츠 플랫폼인 픽코마(Piccoma)의 경우 애니메이션 업계 1위인 일본에 진출한지 1년 만에 3분기 약 6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에 이어 4분기에는 7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일 이용자수는 100만 명을 넘어 월 거래액이 30억 원에 달하고, 유통 작품 수는 1350여개로 일본 웹툰 업계 중 최대 규모로 성장하였다. 웹툰 기업 디앤씨미디어(Dncmedia)도 2017년 매출액 265억 원, 영업이익 54억 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각각 40.5%, 47.1% 늘었다고 밝혔으며, 당기 순이익은 45억 원으로 전년대비 5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⁶⁾

기업들이 앞 다투어 웹툰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는 원소스멀티유즈(OSMU) 형태의 파생 콘텐츠(음원, 게임, 영화, 소설, 뮤지컬, 굿즈)로 확장하여 수익률 증대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웹툰 원작이 다른 콘텐츠로 제작된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강풀 작가의 「이웃사람」은 영화로 제작되어 관객 수 243만명을 동원하였고, 제작비의 4배가 넘는 180억원의 매출 이익을 올렸다.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관객 약 700만명, 「내부자들」은 관객 약 900만 명을 기록하였다. 그 중에서도 2017년 상영된 「신과 함께: 죄와 벌」은 관객 1000만을 돌파하였으며, 「강철비」와 「장산범」도 각각 400만, 100만 관객을 유치하여 그 흥행을 이어나갔다.⁷⁾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도 많이 제작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2014년 tvN에서 방영한 윤태호 작가의 「미생」이다.⁸⁾ 이 외에도 「하이드 지킬, 나」, 「냄새를 보는 소녀」 등과 같은 작품이 지상파로 영역을 확장했고, 「동네변호사 조들호」와 「마음의 소리」도 연달아 제작되었다. 이렇게 웹툰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확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⁹⁾ 웹툰이 다른 콘텐츠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까닭은 인기 웹툰의 경우 이미 독자들에게 검증된 소재로 팬덤이 형성되어 충성고객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시청자(관람자)의 경우 작품에 대한 이해가 사전에 되어 있으며, 제작자 입장에서는 웹툰의 스케치를 통해 전체적인 구성이 제공되어 영상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다.

무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한국의 무용계는 대중화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왔다. Mnet이 제작한 댄스 서바이벌 「댄싱 9」이 대중적 인기를 끌자 춤에 대한 경계를 낮추었다는 평가와 함께 춤에 대한 획일적 전달과 경쟁적 측면에서 춤을 단편화시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양분된 시각은 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촉발시켰다는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그 의미를 두고 있다. 본 연구는 TV매체가 춤을 다룸으로써 대중적 관심에 일조한 것과 같이 웹툰이라는 디지털콘텐츠가 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웹툰이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특징에 주목하여 춤을 소재로 하는 인터넷 만화가 춤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빌레라」를 시모어 채트먼(Seymour Chatman)¹⁰⁾의 서사구조 이론을 적용하여 줄거리를 파악하고, 이 웹

5) 정문경(2018), 카카오, 일본시장 정조준...네이버 라인에 도전장,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04836>, 2018. 2. 14.>.

6) 허운영(2018), 노블코믹스의 위력...디앤씨미디어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머니투데이』,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8021316381582574, 2018. 2. 14.>.

7) 앞의 기사.

8) 앞의 기사.

9) 앞의 기사.

10) 시모어 채트먼(1928-)은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로 재직하였다. 그의

툰의 댓글 중에서 춤과 관련된 댓글의 내용을 분류하여 춤 소재 웹툰이 어떠한 역할과 인식을 갖게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빌레라」는 2016년 7월 26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57회 연재되었다. 연재되는 동안 독자들에게 평점 10점을 받아 랭킹 1위를 기록하고 매회 당 200~1700개의 댓글과 1,000~16,650의 추천(2018년 3월 기준)이 된 인기 웹툰이다. 연재 종료 후에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으며 유료결재로 전환된 이후에도 꾸준히 구독되고 있는 것에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채트먼은 서사를 ‘이야기(story)’와 ‘담화(discourse)’의 결합이라 정의하는데, 그는 이야기를 분석하는데 있어 ‘사건(events)’과 ‘존재(existents)’ 요소로 우선 구분하고, 사건에는 ‘행위(action)’와 ‘돌발(happenings)’, 존재에는 ‘등장인물(characters)’과 ‘배경(settings)’으로 다시 구체화 하여 분류하였다.¹¹⁾ 그리고 표현의 실체가 되는 담화를 논의하는데 있어 발현매체가 되는 언어, 영상, 발레, 판토마임, 기타 등과 같은 다양한 표현 방식들이 있다고 말한다.¹²⁾ 스토리는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서사담화는 내러티브의 표현을 이루는 구조나 원리라 할 수 있다. 채트먼의 서사분석은 담화의 발현매체 각각의 특수성을 숙고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도식화하는데 무난하여 여전히 영화 뿐 아니라 문학, 애니메이션 등의 내러티브 연구에서 주로 참고하도 있다.¹³⁾ 본 연구에서는 웹툰의 이야기를 파악하기 위해 채트먼의 이야기 요소와 담화 중에서 발레와 관련 있는 언어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독자들의 전체 댓글 중에서 무용과 관련한 댓글을 추출한 후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을 재분류하여 춤을 소재로 하는 웹툰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역할과 인식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에 앞서 웹툰의 분량과 주제적 논의에 있어 발레에 직접 관련이 높은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본문에서 인용한 댓글의 경우 아이디 대신 임의의 번호를 부여하였고, 인터넷 댓글의 경우 오타나 은어, 이모티콘, 약자의 사용, 문장부호의 남발, 띄어쓰기 무시가 일반적이어서 부분적으로 오타, 띄어쓰기, 이모티콘 삭제, 글의 분량과 댓글 간의 대화 등을 축약하여 논문의 가독성을 높였다.

II. 웹툰 「나빌레라」의 서사분석

1. 「나빌레라」의 이야기 구조

이 웹툰의 이야기를 채트먼의 서사분석에 따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우선 ‘사건적 요소’에서 ‘행위’는 70살 노인 심덕출이 젊은 시절 꿈이었던 발레를 배우기 시작하려고 하지만, 가족들은 크게 반대한다. 덕출은 문경국 발레단에서 발레를 배우기 시작하고, 발레 단장은 이채록을 덕출의 개인 훈련선

연구는 소쉬르의 연구를 계승했던 코펜하겐 학파의 엘름슬레우(Louis Hjelmslev)의 연구에서 영감을 얻어 내러티브 구조를 분석하였다. Seymour Chatman(1978), *Story and Discourse :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New York : Cornell University Press), p.26(서정남(2010), 영화 텍스트의 계층적 구조, 그리고 서사학적 연구 방법론의 한계와 과제, 『영상예술연구』 16, p.68 재인용).

11) 시모어 채트먼(1978),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김경수(역)(서울: 민음사, 1990), pp.20-21.

12) 앞의 책, p.28.

13) 서정남(2010), pp.68-69.

생으로 연결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채록과 덕출은 발레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결국 덕출은 발레리노로 무대에 설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돌발’은 크게 4차례에 걸쳐 일어나 내러티브의 몰입을 돕고, 독자에게 긴장감을 제공하는 장치로 사용된다. 첫 번째 돌발 사건은 발레를 배우고 싶다고 선언하는 덕출에게 크게 반대하는 첫째 아들 성산의 등장이다. 두 번째 돌발은 문경국 단장이 채록에게 덕출을 가르치고, 덕출은 채록의 매니저가 되어 주라고 지시한 것이다. 세 번째 돌발은 덕출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것을 채록이 알게 되고 아들 성관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마지막 돌발사건은 덕출의 치매 정도가 심해져 무대공연이 무산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물적 요소’의 ‘등장인물’을 살펴보면, 주인공 심덕출은 은퇴한 70세 노인으로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러시아에 갔다가 발레를 처음 접하게 된다. 발레리노가 되고 싶었지만 한 집안의 가장으로 자신의 꿈과 떨어진 채 가족 생계만을 열심히 꾸려오다가 늙어버린 이 시대 아버지의 자화상이다. 그리고 심덕출의 아내는 발레에 도전하는 남편을 반대하지만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인물로 덕출의 치매 사실을 채록과 성관의 대화를 통해 우연히 듣게 되면서 알게 된다. 그 사실을 내색하지 않고 내조하는 헌신적인 부인이다.

〈표 1〉 「나빌레라」의 이야기 구조

이야기	사건적 요소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살 노인 심덕출이 젊은 시절 꿈이었던 발레를 배우기 시작 ○ 가족들의 반대 ○ 발레연습실에 등록 후 채록에게 발레를 배우면서 세대 간,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의 과정 ○ 발레공연으로 꿈 실현
		돌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록의 방황을 덕출이 목격 ○ 덕출의 치매를 채록이 발견 ○ 덕출의 치매 사실을 주변에서 알게 되는 사건들 ○ 덕출의 치매가 심해져 무대공연이 무산될 상황 발생
	사물적 요소	등장 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덕출: 은퇴한 70세 노인 ○ 심덕출의 아내: 발레에 도전하는 남편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나중에는 적극 응원해주며 내조 ○ 심성관: 덕출의 첫째 자식, 덕출이 발레를 배우는 것에 대해 가장 극렬한 반대의견 제시 ○ 심성관: 덕출의 셋째 자식, 덕출이 발레하는 것에 대해 지지 ○ 문경국: 은퇴 후 후학양성에 힘쓰는 무용단 단장 ○ 이채록: 덕출에게 발레를 알려주는 발레연습생, 휴학과 부상,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발레단 입단이 좌절되어 방황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덕출의 집 ○ 심덕출의 무용 연습실 ○ 심덕출의 무대

심성산은 덕출의 첫째 자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늘 일등만 하고, 부모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는 모범적인 큰 아들이다. 덕출이 발레하는 것에 격렬히 반대 하지만 덕출을 위하는 마음 만큼은 누구보다 큰 보수적인 중년이다. 심성관은 덕출의 막내 자식으로 방송국 PD로 일하고 있다. 발레를 하겠다고 선언한 덕출을 유일하게 응원하는 인물이며, 채록을 통해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덕출의 치매 사실을 알게 된다. 문경국은 유명 발레리노로 발레단 은퇴 후에 후학양성에 힘쓰는 무용단 단장이다. 채록과 덕출

을 연결해주는 매개자이다. 경제적 문제, 부상, 어머니의 부제, 아버지와의 관계 등의 문제를 안고 방황하던 채록은 덕출과의 관계를 통해 점차 무용가로 성장하게 되는 젊은 청년이다. 덕출의 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덕출의 가족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물이다. 이 웹툰에서 ‘배경’은 크게 심덕출의 집과 무용 연습실, 무용공연 무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야기의 대부분은 집과 무용 연습실이며, 덕출의 무대는 마지막 56화에서만 구성된다.

2. 「나빌레라」의 담화 구조

이 웹툰의 작가는 에필로그에서 발레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을 끌고자 하는 도구일 뿐 가족, 친구, 꿈, 이웃, 삶의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밝힌다. 1화를 제외한 모든 편에서 발레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있지만 작가는 70세 노인이 발레에 도전하는 설정을 만듦으로써 노인에 대한 편견과 발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야기 구조를 토대로 어떻게 담화를 구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심덕출이 “발레를 해보려고 한다”고 선언하는 장면이나 첫째 아들이 “이제 하다하다 뭐를요?! 발레를 하신다니요! 왜이러세요 정말!”이라고 화를 내는 장면, 심덕출의 아내가 “그냥 관심인줄 알았지!! 죽을 때 다 돼서 그런 민망한 웃이나 입고!”, “아직도 일흔노인이 발레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내가 발레와는 가장 멀어 보이는 사람일텐데...”라고 하는 대사에서 발레라는 것이 남성노인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장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발레 전문가인 단장 문경국의 “전 아직도 반신반의해요! 일흔살 되시는 어르신이 발레를 하신다는 것을 찬성하기도 힘들뿐더러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게 사실입니다.”라는 말에서도 반복된다. 이 웹툰은 상당한 분량에서 발레의 움직임 기술이 노인에게는 무리가 있으며, 특히 신체에 달라붙는 타이즈에 대한 일반인들의 사회적 인식을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작가는 남성노인이 발레를 한다는 익숙하지 않은 소재에 한국사회에 잘 알려진 치매라는 질병을 주인공에게 배치하여 독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있다.

그리고 「나빌레라」의 서사에서는 시종일관 “늙었다고 해서 쉽사리 받아들이고 싶진 않아”, “전 발레가 하고 싶어요.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발레가 하고 싶어요.”, “저 발레가 좋아요. 더 좋은 게 있을진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해 온 것 중엔 제일 좋고 계속하고 싶어요.”, “발레는 나에게 인생이었어” 등의 대사를 통해 꿈을 이루려는 주인공들의 의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독자들을 발레리노라는 꿈을 향한 노인의 열망과 노력하는 말을 통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형성하게 한다. 웹툰에서는 발레를 도구로 하고 있지만 독자는 각자의 입장에서의 상황을 대입하게 된다. 또한 70대의 덕출과 20대의 채록의 대화 관계를 통해 세대 간의 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시말해 「나빌레라」에서는 발레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보편적 정서와 인식을 함께 구성하여 일반 독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캐트먼은 담화를 구성하는 발현요소에서 비언어적 형태이지만 신체 움직임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발레를 제시하고 있다. 웹툰의 경우 2D 화면에서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해되는 것에 한계가 있는데 작가는 구체적인 ‘악태온 바리에이션’ 등 발레 작품의 제목이나 ‘휘떼’, ‘파 드 되’ 등의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그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었다. 발레 스케치와 함께 ‘팅-엉’, ‘쿵’, ‘타-앗’, ‘탓’, ‘파앗’, ‘스

익' 등과 같은 의태어를 함께 사용해 발레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배가 시켰다. 의태어는 움직임과 모양을 청각적 상상으로 연상시켜 그림에서의 동작성을 보완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발레 동작을 감상하는데 있어 세로 스크롤로 보는 웹툰의 방식은 서정적 분위기 연출과 동작의 크기를 구성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 한 페이지에 칸을 분할하던 출판만화에서 벗어나 칸 자체만으로 세로 길이를 극대화하여 독자가 스크롤 바를 내려가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영화의 페이드 인(fade in), 페이드 아웃(fade out)과 같은 효과를 보여준다.¹⁴⁾ 동작성이 없는 2D의 만화지만 독자는 세로 스크롤 방식에 따라 보다 동작성을 상상하며 읽을 수 있는 것이다.

〈표 2〉 「나빌레라」의 담화 구조

담론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담긴 대화 ○치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정서가 담긴 대사 ○자아실현에 대한 보편적 정서를 드러내는 말 ○세대간의 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말
	발레 스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레동작 명칭을 함께 제시 ○발레 작품명과 함께 제시 ○발레 동작의 스케치와 함께 의태어 사용 ○덕출의 무대공연 스케치에 배경음악 삽입

III. 웹툰 「나빌레라」의 댓글분석

앞 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웹툰은 소비자의 반응을 갖춘 매체로 독자의 반응을 별점 추천 외에도 댓글의 기능을 통해 독자와 작가의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춤과 관련한 독자들의 반응을 분류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논의하겠다.

1. 교육 및 지식 공유

「나빌레라」의 댓글은 독자들 간의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교육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발레와 관련한 정보를 갖고 있는 독자가 댓글에 댓글을 달면서 지식을 공유하게 된다. 〈댓글2〉, 〈댓글3〉에서 볼 수 있듯이 발레동작의 명칭이나 자세설명, 난이도 외에도 〈댓글4〉와 같이 무용 옷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 발동작이 뭔가 되게 몽클하다. /댓글1

↳ 뜬금없지만, 바프망 탄두 동작입니다. /댓글2

근데 할아버지 진짜 재능 있으심. 연습하실때 보면 발끝이 완벽하게 바깥으로 나가서 수평이 짱음? 그게 발레에서는 턴-아웃이라고 하는 특유의 자세이고, 그 자세가 나오는 체형이 되기가 어려움. 근데 지금 며칠 하고 그 턴-아웃이 되신거임. ... 어찌면 할아버지 젊어서 발레 하셨으면 엄청 크셨을지도 모름 /댓글3

14) 박인하(2011), 한국 디지털 만화의 역사와 발전 방향성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10(3), pp.69-72.

댄싱벨트? 침 듣는 말이고 소프트는 더더욱 아니고 보통 써포트라 불러요. support 팬티 같은 거라 남을 절대 빌려줄 순 없고요 채록이가 새걸 준건가? 비싼데?(하나에 2만원이상) /댓글4

발레 지식을 먼저 구축한 댓글자들이 추가 정보를 제공하면서 발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래의 댓글과 같이 발레의 저변확대를 위한 발레단들의 노력과 대중적 인기가 있는 최근의 무용교육, 인기무용수의 경향을 소개하면서 <댓글5>와 같이 작가에게 대한 구체화된 정보의 양을 늘려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한다. 지식공유를 하는 댓글자들의 특징은 ‘발레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 ‘제가 해보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와 같이 자신을 경험자로 미리 소개하면서 자신의 글이 근거가 있으며, 다른 독자 보다는 전문적 견해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선도적 정보자로서 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공유하고, 다른 독자들에게도 발레에 대한 관심의 확장이 되기를 권유하고 있다.

발레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으로 글을 남깁니다. 요새 한국에서도 어르신들이 발레를 접하는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배우시는 분들도 많구요. 그리고 최근에 어느 발레단에서는 노숙자들을 위한 발레 수업도 열고 그들과 함께 무대를 선 일들도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정보를 더 많이 접해보시고 폭넓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풀어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있네요. 일단 참신하게 발레라는 장르를 웹툰으로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외국은 일반 발레학원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 장애인들 정말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발레를 배우고 있습니다 /댓글5

네! 제가 해보니까 발레는 운동 능력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더라고요.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몸의 근육 하나하나를 다시 만들고 길게 늘이고 음악을 듣고 그걸 이해하고 그 감정을 그대로 관객들에게 전달해야 하고, 자기에 집중하고, 극한의 예술인거같아요! /댓글6

러시아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발레리노 라니까 마린스키 발레단의 김기민 발레리노가 떠오르네요. 정말 천재적인 발레리노세요. 아직 어리신데 마린스키에서 수석무용수로 계시구요. 러시아가 발레에 자부심이 큰데 그곳에서 수석무용수는 대단한 겁니다. 이 만화를 통해 발레에 관심이 생기신 분은 김기민 발레리노가 춤추는 영상을 꼭 한번 찾아보세요. /댓글7

...우리나라 최고의 발레리노 김현웅 선생님의 자문이라니요! 정말 좋은 작품이 될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발레는 운동이 아니야라는 말, 저도 맨날 하거든요... /댓글8

2. 개인경험의 연상 작용

댓글의 내용 중에서「나빌레라」의 서사와 개인의 경험을 연상짓는 댓글이 많았다. 연상의 내용을 살펴 보면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거나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으며, 댓글자의 자기고백에 댓글자간의 응원과 위로가 추가적으로 게시되고 있었다.

60세를 훌쩍 넘기고 70을 바라보는 할머니 입니다 어찌다 나빌레를 봤습니다 저도 여고 때 잠시 발레를 했지요 아주 잠시 살다가 아쉬움이 남는다면 아마 그 때 엄마를 더 즐라서 발레를 좀 더

해 볼 걸 하는 것이 었지요. 정말 피난민 촌에서는 금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했지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나의 추억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일이 포기하지 않고 해보겠다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늙으면 눈물이 많아지죠. /댓글9

제나이 30입니다 15년 동안 비보이라는 걸 하고 집안 사정 때문에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댄서라는 직업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현실은 정말 힘들더군요. 웹툰보면서 뭔가 가슴을 후벼파네요. 정말 저런분이 계신다면 전 응원합니다 무조건이요 /댓글10

집안 사정 때문에 5년 하던 발레를 그만두고 꿈을 잊고 인문계에 진학하여 수능을 준비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만화지만 할아버지가 행복하게 꿈을 이루셔서 발레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댓글11

↳ 현실 때문에 꿈을 포기하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수능 준비 잘 하시고 나중에라도 꿈을 이루신다면 정말 좋은 무용수가 되실꺼예요! 응원하겠습니다! /댓글12

저도 서른이 넘어서 발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발레 공연을 보러갔다가 이재우 발레리노가 너무 멋있었고 그 후엔 아 다시 태어나면 발레가 하고 싶더라고 하던 찰나에 용기내어 발레를 배우게 됐네요. 항상 작가님께 감사드리고 이 웹툰을 보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댓글13

↳ 저는 아직 20대 초반이지만 포기한 꿈에 대해 다음 생에 태어나면 꼭 해보아야지 생각하곤 했는데 멋지십니다. 응원할게요! /댓글14

↳ 응원합니다! 저도 이재우님 팬이에요. 예전에 6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성분이 레오타드까지 갖춰 입으시고 국립발레단 아카데미에서 같이 수업 들으셨어요. 젊은 여성들만 가득한데도 전혀 주눅 들지 않으시고 누구보다 멋지게 그랑주떼 하셨어요. 30대시면 아주 젊으세요! / 댓글15

저도 서른이 넘어서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발레가 어릴 때 로망이었는데 커가면서 하고 싶은걸 한다가 보단 필요한 거, 남의 이목에 거슬리지 않은거... 이런 이유로 무언가를 선택해서 하게 되더 라구요. 아무 조건 없이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늦게라도 발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발레 강습시간만 기다리면서 살고 있어요. 필요에 의한게 아닌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게 개인적으로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를 할아버지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작가님 파이팅이에요! /댓글16

발레를 전공했었던 남자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나이가 젊은 고등학교 때 저는 예고를 진학하지 않고 인문계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선생님들 친구들로부터 관심도 많이 받았지만 놀림과 비난도 많이 받았고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정말 반대를 많이 한 게 상처가 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화에서 나온것같이 그런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이드네요 대중들에게 좀 알려진 요즘 에도 우리는 발레공연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수도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아닌 남자가 레오타드를 입고 포인을 한다는 건 충분히 거부감이 들 수가 있죠. / 댓글17

개인의 경험을 연상하는 댓글 중에서 자신이 아닌 타인의 경험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댓글17>과 <댓글18>은 두 사람 다 발레 경험자이지만 남성이 타이즈를 입는 것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댓글자들의 상반된 의견의 참여는 이 웹툰의 서사에서 마련한 등장인물 간의 돌발적 사건과 부

합하고 있어 독자들은 추가적으로 댓글 기능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그리고 <댓글19>, <댓글20>처럼 주변인의 경험과 연상짓기를 하였다.

미국 작은 발레학원에 수년씩 발레한 할아버지 할머니 흔하던데 헬스장에더 남녀노소 있듯이 발레 클래스에서도 나이 인종 불문이 정상인 듯 합니다. 그리고 요즘 서울 중심으로 취미 성인 발레하는 곳은 남자분들도 종종 있어요. 남자 선생님들도 수두룩 하구만. 유니타드 보고 민망하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머리 속이 민망한 거예요. 발레 하다 보면 자기 몸 보기 바쁘지 남의 몸 쳐다볼 시간도 없구요. /댓글18

발레하던 친구도 결국은 일반 회사로 가더라구요. 진짜 많이 예체능을 하는 학생들이 들어간 돈에 비해 벌어들이는 것도 없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살아남기도 힘들어하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요. 꿈이 있어서 도전하고 나아갔는데 현실에 좌절되는 거 같아서요. /댓글19

칠년 다닌 회사를 관두고 평소에 관심있던 발레를 늦은 나이에 시작한 지인이 있습니다. 삼십 대니까 할아버지에 비하면 늦지도 않네요. ...발레든 뭐가 되었든 늦게나마 꿈을 시작해 본다는 것! 그 용기 한번 내보자구요! /댓글20

3. 가상에 대한 몰입과 현실 동일시

댓글에서는 웹툰의 등장인물을 의인화하여 대화를 전달하듯 응원과 바람을 전달하고 있었다. 특히 주인공 심덕출이 발레를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고, <댓글24>와 같이 주인공의 상황에 대한 당위성을 만들어 이해를 동반하기도 하였다.

할아버지 저 다니던 발레학원에도 70세 할머니 계셨었어요. 저도 취미로 시작한지 8개월째데 발레 정말 좋은 운동이랍니다. 오래오래 몸 다치지 마시고 행복하게 발레하세요. ... /댓글21

저 작은 동작 하나에도 나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춤추고 싶어하는지 잘 알겠다. 할배 힘내요 /댓글22

할아버지로 인해서 채록이가 제대로 무용수의 길을 가면 좋겠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꿈을 이루면 좋겠고. /댓글23

꿈을 가질 새도 없이 여기까지 달려 오신게 아닐까요. 재능이 있어서, 세계적인 발레리노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걸 남들 눈치 안보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할아버지에겐 꿈같은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24

저자가 서사의 사건을 구축하기 위해 설정한 돌발 요인인 가족들의 반대하는 것에 대해 독자들은 감정이입이 고조되고 있음을 댓글을 통해 알 수 있다. 주인공 덕출을 응원하고 가족들이 반대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타진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발레라는걸 떠나서 뭘 하겠다는데 하기도 전에 반대하는것도 너무하고 그 이유가 본인들이 창피해서인거 같아 더 너무하다. 내가 하겠다는데 남도 아니고 가족이 더 저러니 서운할 법도 한데 **할아버지 꼭 발레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댓글25

근데 왜 할아버지가 발레 하시는게 부끄러운거예요? **발레가 딱히 부끄러운 운동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데..** /댓글26

아들이 아버지를 부끄러워 하지않았으면 좋겠다. 자기도 하고싶은거 먹고싶은거 다하고 살텐데 아버지가 발레하나 하겠다는 거 갖고 저렇게 화낼일인가? 할아버지께서 힘내시고 포기안하시고 **발레 하셨으면 좋겠네요** 응원할게요. /댓글27

할아버지. 발레를 하고 싶다면 가족 말 신경쓰지 말고 하세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취미잖아요! 창피한 건 바로 가족 이라고요! /댓글28

아 채록이 말 들으니까 찡하다. 남은 인생을 걸었다니. **할아버지 꼭 건강하게 열정적으로 발레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댓글29

목표가 있다는 건 정말 삶의 큰 힘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발레를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에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십니다. /댓글30

할아버지의 발레를 응원할게요. /댓글31

4. 확장 콘텐츠 제작 지지와 능동적 의견 제시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웹툰은 다른 콘텐츠로 제작되기에 용이하고, 영화나 드라마 등으로 제작된 성공 사례들을 통해 그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독자들 또한 다른 콘텐츠로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댓글36>에서는 발레의 움직임이 그대로 형상화되는 피규어 제작을 요청하고 있다. 피규어의 제작 의견에서도 발레라는 장르가 갖는 동작성과 움직임의 미의 특징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앞으로 헤쳐나갈 할아버지의 발레 인생이라든지 가족과의 케미라든지 주변의 시선을 전환시키는 카타르시스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찌할 수 없는 감동까지... 결론은 **나빌레라 영화화 100%**라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32

이런 내용은 드라마보다 영화죠 /댓글33

인정합니다. **드라마보다는 영화가 캐스팅 면에선 더 낫다고 봐요.** /댓글34

진짜 최고의 작품입니다 **영화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댓글35

www.kci.go.kr

아 가능하시다면 할아버지와 채록이가 발레하는 장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둘이 약간 겹쳐서 점프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피규어 같은 걸로 제작이 되면 좋을 거 같아요 가장 아름답고 몽클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댓글36

이거 드라마로도 영화로도 나오면 꼭 찾아봐야지 글구 드라마로 나왔음 좋겠다 최고의 작품!
/댓글37

독자들은 확장된 컨테츠로의 요청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웹툰의 등장인물에 어울리는 배우들에 대한 캐스팅을 제안하고, 서로 간의 의견을 확인, 동조,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웹툰이 발레를 소재로 하는 특수성을 인지하여 발레가 가능한 배우들을 추천하고 있었다.

전부터 생각했는데 이거 영화화하면 좋겠다. 내용 좋고 소재도 참신하고 교훈도 주고 다 좋은 듯. 문제는 할아버지 역을 누가 하느냐 인데.../댓글38

↳ 박근형 /댓글39

↳ 안성기 선생님.. 진짜 딱이네요. /댓글40

↳ 이순재 할아버지요 /댓글41

↳ 저도 이순재 할아버지에 한표요ㅎ /댓글42

↳ 저는 친구 선생님... /댓글43

↳ 몸으로 보나 연기로 보나....안성기 선생님 이외에는 안떠오르는군요... /댓글44

발레 소화 해 내실 할부지 배우님...?!!! 무리라고 다들 거절하실거 같긴함 ㅠㅜ /댓글45

채록인 이준이지...발레출신...오케? /댓글46

영화로 나오면 좋겠다! 채록이는 이준이 하면 좋을거 같은데 무용도 잘하공 할아버지는...
/댓글47

5. 자기발전의 기제

치매 걸린 노인의 발레 도전기를 다룬 이 웹툰을 통해 독자들은 자기 발전의 기제로 삼고 있었으며, 특히 자기 발전의 다짐, 반성을 쓴 댓글에 응원과 희망을 전달하는 댓글이 많았다. 웹툰의 소재가 발레라는 점에서 발레에 대한 호기심,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저는 이 만화를 경건한 마음으로 봅니다. 좋은 만화 감사합니다. 평생 발레를 꿈만 꾸다가 48에 취미발레 시작해서 50에 토슈즈 신었습니다. 꿈은 늙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 모든 분들께 파 이팅! /댓글48

↳ 꿈은 늙지 않아요!! /댓글49

↳ 응원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올 해 제가 48입니다. 우연히 이 만화 보게됐는데....참 기막힌 우연이라 생각합니다... /댓글50

아들이 추천해줘서 보게 되었는데 발레를 하고 싶어하시는 할아버지를 응원해요. 저도 40대 후반인데 새로운 일(직업)을 시작해서 재미있게 하고 있거든요 /댓글51

웹툰 보면서 교훈을 얻고 있어요. 20살에 예체능 입시로 변경해서 다시 하나고 정말 죽을거 같아요 매일 새벽에 밤새 알바하고 레슨비 벌어서 다니고, 22살인 지금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요새 연습을 엄청 안했거든요. 오늘 화를 보니 다시 연습 하려고요. 한 달 남았지만 밤새 해서 완벽하게 하고 시험장 가서 합격 맞고 올게요. 할아버지 응원합니다. 제 자신도 응원합니다! 꼭 합격해서 자랑스럽게 댓글 달게요! /댓글52

저도 어릴때 발레를 하고 싶었는데, 흐지부지 그냥 꿈으로 접고 말았어요. 나빌레라를 보면서 70대이신 할아버지도 하시는데 제 나이 40대 중반. 저도 더 늦기전에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요. 만화이지만 할아버지 진짜 많이 응원합니다! /댓글53

부끄럽지만 공무원 준비생인데 발레에 꿈이 있어요. 어릴 적부터 타고 났다, 무용전공이난 소리 듣고 자랐지만 부모님 말씀따라 운동은 한 번도 다녀보질 못하고 동경만 하다가..과외비 받은 길로 딱 한 달 발레 학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게 돼연장해 다니지 못하고 꿈만 간직한 채 발레 스트레칭 씨디와 책을 구입해 운동삼아 하곤 해요. 이미 이십대 후반이라 근력도 많이 달리고, 이뤄야할 목표가 있어 요새는 그나마도 미루고 있는데요.. 꼭 무대에 올라보는 게 꿈이에요. 이 만화 보면 너무 설레어요. 덕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댓글54

작가님 단행본 내주시면 안될까요? 작년부터 발레를 시작한 대학생이에요 진짜 진짜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꿈에 막 나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전공이랑 너무 다른 길이고 취업이나 대학원진학도 생각해야해서 휴학도 못하겠고(사실 발레 때문에 휴학 하겠다고 하면 집에서 절대 절대 허락을 안해주실거라는게 더 크죠) 성인취미반에서 일주일에 한두번 스트레칭하는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네요. 나빌레라 보면서 그래도 역시 한번 해봐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고 용기를 얻고 있어요. 책장에 꽂아두고 보고 또 보고싶습니다. /댓글55

뮤지컬배우가 꿈인 사람인데 졸업을 하고 오디션을 봐도 생각만큼 잘되지 않아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러워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이 웹툰을 보면서 정말 많은 공감과 위로가 되네요 그 분들도 하루아침에 된게 아닌데 저는 하루아침에 많이 나아지길 바라는 욕심쟁이였던것 같아요 작가님 저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56

저..그 무용 다시 시작했다는 고삼인데요 10년동안 했어도 3년 쉬어버린 공백채우는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직도 원래 상태 못찾아서 역시 무리였나 하고 생각할때도 자주 있지만 역시 다시 무용을 하게되서 정말 좋아요 진짜 작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웹툰이 없었다면 겁나서 다시 시작할 엄두도 못냈을거예요 언젠가 꼭 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57

저는 발레를 해요 그리고 저는 초2 때 시작했어요 분명 느리지는 않았죠 지금 중1이니까 자그마히 7년이나 한 거죠 근데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하고 있던 친구는 5살 때 시작했네요 친구가 영재원에 가고 선화 예중에 들어갔어요 저는 계속 그 자리인 것 같은데 말이죠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예뻐서 신기해서 좋아서 하던 발레가 점점 쌓은 게 아까워서 엄마가 속상해 할 테니까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죠. 내가 왜 시작했는지도 모르겠고 혼날 때마다 마음이 착잡하

고 죽고싶다는 마음도 잠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웹툰을 보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댓글58

↳ 제니님 힘내요~!! /댓글59

6. 발레에 대한 간접 경험

웹툰이지만 독자들은 그림 속 춤 공연을 통해 실제공연을 관람한 것과 같은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무가 틀리실 까봐’, ‘공연 멋지게 마칠거예요’, ‘무대에 선 할아버지를 볼 수 있어 다행’에서 볼 수 있듯이 댓글자들은 실황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연에 대한 긴장감 갖고 있다. 또한 공연에 대한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린 것에 대해 감상의 정도를 고백한다. 56화의 경우 <댓글67>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배경음악을 삽입하여 독자가 마치 공연장 객석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으며, 독자는 웹툰의 서사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 특히 작가는 56화 처음부터 배경음악이 나오도록 설정하지 않고, 스크롤을 내려 56화 서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운드가 흐르도록 설정하였다. 음악의 사운드는 갑작스럽거나 긴장을 조장하지 않고 서서히 페이드 인 시켜 독자 스스로가 스크롤 조작과 함께 몰입할 수 있는 이중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몰입은 <댓글60>부터 <댓글67>까지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는 감동의 단계까지 이끌어 내고 있다.

할아버지 안무 틀리실까봐 조마조마 보다가 마지막엔 눈물이 주룩 흐르네요. 감사해요. ... /댓글60

무대에 선 할아버지를 볼 수 있어 다행입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좋은 작품 감사합니다! /댓글61

할 수 있어요. 심덕출 발레리노와 이채록 발레리노의 첫 공연 멋지게 마칠거예요. 전 믿어요. 제발! /댓글62

발레를 이토록 관심있게 본 적이 없다. /댓글63

할아버지의 발레 기다리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댓글64

할아버지 공연 시작부터 평평 울었네요. 공연하셔서 다행이에요 할아버지 하실 수 있어 다행이다. /댓글65

난 그냥 발레하는 걸 본 것 뿐인데, 계속해서 눈물은 흐르고 마지막 장면이 끝날 때까지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댓글66

소리내어 울어버렸어요. 음악까지 넣어 주시니 정말 발레의 한 장면이 스치듯 지나가네요. 할아버지와 채록이의 멋진 발레공연 모습 감사합니다. 마지막 할아버지의 모습에 다시 왈카 눈물이 쏟아지네요. 멋진 작품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67

발레의 경우 몸의 움직임이 수반되는데, 웹툰 안에서의 발레는 스케치로 움직임을 구현하고 있다. 댓글자들의 글을 확인 해보면 실제 움직임으로 연상되고 있어 동작과 발레를 수행하는 신체에 대한 감동

을 배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감동은 작가가 출판만화에 비해 지면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웹툰의 와이드 샷(wide shot)과 롱샷(long shot)연출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발레의 동작을 수행하는 주인공들의 신체를 확대하여 그리는 방식은 독자가 움직임의 연상하는데 효과를 준다.

발레선에서.. 움직임의 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현실적인 엔딩 좋네요. /댓글68

발레하면서 한 동작할때마다 과거 보여지는 장면이 마음이 너무 정했어요/댓글69

...채록이가 춤추는 장면을 보면서 감동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근육의 움직임과 섬세하게 표현된 채록이의 마음이 모니터 화면을 뚫고 전달되는 느낌이라 눈물이 나오네요. ... /댓글70

채록이와 할아버지의 발레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잃고 쳐다봤네요. 몇 번을 스크롤을 올렸다 내렸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공연을 무사히 마친 건 기쁜데,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고개 들었을때 노쇠해 진 얼굴을 보니 슬프고 그래도 채록이가 성공해서 주연으로 당당히 무대에 서서 발레하는 거 보니까 감격스럽고, 참 여러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네요. 좋은 작품 만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가님! /댓글71

발레에 대한 기초지식이나 발레를 관람한 경험이 없는 독자들에게 웹툰「나빌레라」는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발레를 하나도 볼 줄 몰라도 그저 하고 싶었던걸 저렇게 해내는 모습이 대단해보입니다. 회상 장면표현은 더 대단했어요. 채록이 저렇게 간지 철철 흐르는 모습도 멋지네요. ... /댓글72

감사합니다. 발레라는 예술의 장르의 문외한 이지만 탄탄한 스토리 정감있는 그림체 드라마틱한 극 전개 정말 멋집니다. ... /댓글73

최고 었습니다. 발레라곤 전혀 모르던 내가 참 즐겁게 봤던 만화였습니다. ... /댓글74

IV. 결 론

이 연구는 웹툰 「나빌레라」를 시모어 채트먼의 서사구조 이론을 적용하여 줄거리를 파악하고, 춤과 관련한 댓글을 분류하여 춤 소재 웹툰이 어떠한 역할과 인식을 갖게 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서사의 이야기 구조에서의 행위는 70세 은퇴노인이 발레리노로 데뷔하면서 세대간, 가족 간의 소통을 다루고 있지만, 젊은 세대와 매개 지점을 만들어 갈등을 유발시켰다. 그리고 주인공의 치매라는 설정을 통해 이야기 흐름에 긴장감을 부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로 그려지는 인물은 5명 정도이다. 배경은 주인공의 집과, 연습실, 무대 공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이 이야기 구조에 독자들은 발레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 즉 노인이 발레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과 남성 발레리노 의상에 대한 선입견,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정서, 자아실현에 대한 보편적 정서, 세대간의 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대

사를 통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었다. 게다가 세로 스크롤로 읽는 웹툰의 방식과 확대 축소해서 볼 수 있는 방식, 발레의 전문용어 제시, 발레 동작의 스케치와 함께 사용되는 의태어, 배경음악의 사용은 독자가 춤에 대한 담화를 형성하여 웹툰의 서사에 몰입하게 도와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빌레라」의 서사를 통해 독자의 댓글을 파악해 보면 먼저 춤 소재의 웹툰을 통해 춤과 관련한 교육과 지식 공유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독자들은 댓글 기능을 통해 춤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연상하여 기록하였고, 춤에 대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확장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지와 제작과 관련하여 가능한 배역 등을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춤에 도전하는 치매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 발전의 기제로 삼았다. 발레를 직접 경험하거나 관심도가 없었지만 이 웹툰을 통해 발레를 간접 체험한 감상을 기록하고 있었다.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웹툰의 발전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춤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의 제작이 결국 춤의 대중화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웹툰과 같은 콘텐츠와 춤이 연계할 수 있는 계기들이 자주 모색되기를 바란다. 추후 연구에서는 춤을 소재로 하는 웹툰과 인쇄 만화 간에 춤을 구현하는 방식과 내러티브 구성을 비교해 본다면 추가적 논의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전경란(2017). 『디지털내러티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시모어 채트먼(1978).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김경수(역). 서울: 민음사. 1990.
- 박인하(2011). 한국 디지털 만화의 역사와 발전 방향성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10(3): 64-82.
- 서정남(2010). 영화 텍스트의 계층적 구조, 그리고 서사학적 연구 방법론의 한계와 과제. 『영상예술 연구』, 16: 65-96.
-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user.nhn?docid=260d5fd4ec8b7f888cd3c558cab8c151>, 2018. 2. 14.>.
- 마지혜(2017). 관객에게 더 가까이... 눈높이 맞추는 현대무용.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2002561>, 2018. 2. 14.>.
- 이석희(2018). 할리우드에 마블 있다면 ... 한국엔 '콘텐츠 노다지' 웹툰 있다.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67121>, 2018. 2. 14.>.
- 정문경(2018). 카카오, 일본시장 정조준 ... 네이버 라인에 도전장.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04836>, 2018. 2. 14.>.
- 허윤영(2018). 노블코믹스의 위력 ... 디앤씨미디어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머니투데이』.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8021316381582574, 2018. 2. 14.>.

논문투고일 2018. 2. 14
심사일 2018. 2. 20
심사완료일 2018. 3. 29

Abstract

An Analysis of the Narrative and Readers' Response to Dance in Webtoon

- Focusing on the Webtoon 「Nabillrera」 -

Kim, Joohee

Research Professor of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arrative and readers' response to dance in the webtoon 「Nabillrera」. The results of the narrative analysis are 3action, 4happenings, 5characters and 3setting constitute in story element. discourse structure of the narrative centers on prejudice about ballet of old man. Scroll tempo, background music, ballet technical term, mimetic word are elements influencing the fun, tension, immersion of narrative webtoon. The results of the response analysis are education & knowledge share, connection of personal experience, immerse of virtual and reality regard, support about OSMU (one source multi uses), opinion suggestion, self development motive and indirect experience of ballet.

Keywords: Webtoon(웹툰), *Nabillrera*(나빌레라), Dance(무용), Narrative analysis(서사분석), Readers' response analysis(댓글분석)